

### “달빛을 쬐면 지구가 살아나요”

조계사 에너지 캠페인 협약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가 ‘달빛을 쬐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계사는 3월 8일 대웅전에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약식을 맺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선포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조계사 신도들은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채식 위주의 소박한 밥상 차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네가지 실천사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조계사는 서울 26개 지역, 경기 8 지역 등 총 3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지역모임 ‘우리동네 조계사’와 연계해 일반 불자 가정의 동참을 유도 이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달빛을 쬐요 캠페인’은 일상에서 네 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사는 3월 29일까지 108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알려나가는 동시에 각 가정에서 실천한 인증샷 108개도 전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조계사는 3월 8일 대웅전에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약식을 맺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선포했다.

### 황우여 새누리 대표 기도회 발언 구설수

2011년 “모든 대법관을 개신교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축사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민들을 중독자로 매도해 구설수에 올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황우여 대표가 3월 7일 열린 국제친선선조찬기도회에서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메이지 않는다.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메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황 대표가 공인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를 중독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기자

## 근로·주거·노후 3대 빈곤 해결, 사찰 생활공동체 설립으로

불교사회학, 3대 빈곤 불교적 해법 보고서 발간

최근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빈곤층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주거·노후 등 3대 빈곤 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최근 발간한 <3대 빈곤 실태의 조명과 불교의 역할>에서 3대 빈곤의 실태를 조명하고 불교적 대응을 모색했다. 보고서의 책임 집필 위원으로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공동집필위원에는 흥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혜숙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객원교수가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빈곤 관련 2013년 현재 월 임금 100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은 전체 근로자의 13.5%이다. 월 임금 100~200만원 근로자(워킹 푸어 잠재위험군)는 38.3%였다. 두 수치를 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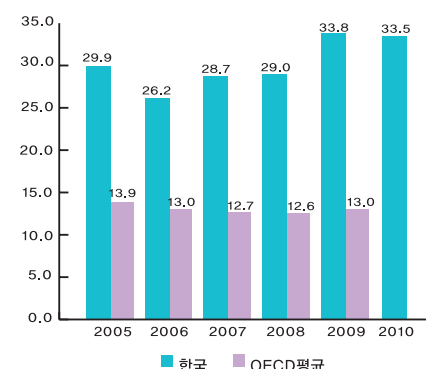
전체 근로자 중 51.8%는 일을 해도 빈곤에 빠져 있고, 잠재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노후 빈곤의 경우 2011년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평균 13.5%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액 비율은 2.1%로 OECD 회원국 평균(7.3%)의 28.4% 수준에 그쳤다.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주거 빈곤 문제도 심각했다. 2010년 한국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8%로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32.5%에 비해 18.3%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3대 빈곤 현상은 결국 전체 빈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근로자 절반 잠재적 빈곤층 노후 상대적 빈곤률 45.1%

중단 내 전담 조직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찰 중심 협동조합 등 공동체 구성해야

곤율의 증대와 자살률의 급증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 빈곤율은 1990년 7.1%에서 2012년 12.1%로 상승했고, 자살률은 2000년과 2009년 사이 16.6명에서 33.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은 14.6명에서 13명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자살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3대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후 빈곤층, 주거 빈곤층, 근로 빈곤층 부담을 줄여 전체 국민의 소비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3대 빈곤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불교계가 연기법과 화쟁론에 근거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

여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단 내 전담 기구 확대 △출가자 및 재가자 교육과정 강화 △장기적으로 사찰 안근 생활공동체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조계종이 안정적으로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칭 ‘노인빈곤위원회’, ‘주거권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 설립이 필수”라며 “이들 위원회의 역할은 관련 쟁점에 대해 불자들에게 정견(正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불교 철학에 입각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생산?분배?소비 등을 해결하는 협동조합 등 사찰 생활공동체가 관련 및 생산과정에서 청년 등을 고용하면 사찰이 ‘근로 빈곤’에 대응하는 고유한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천여 장병을 ‘참불자의 길’로... 국방요람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5000여 장병들이 불자로 거듭났다. 대한불교승가중(총무원장 법수)은 3월 8일 호국연무사 대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병 수계식 및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은 승가중이 주관하고 불교어머니회가 후원해 과일, 음료 등을 보냈다. 이날 계사로 나선 승가중 중령 월인 스님은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군생활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며 성실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뮤지컬 원효 부당지급금 환수

BBS이사회 결의... ‘총무원장 당연직 이사’ 정관 개정 부결

불교방송이 대구불교방송 사육부지 매입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뮤지컬 원효 사업비 부당지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두 차례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종하는)는 3월 13일 제86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대구불교방송 사육부지 매입과 관련해 당시 사장이었던 법조 스님과 총괄국장이었던 장재 스님이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데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대구불교방송은 2006년 사육부지를 위해 서울 본사로부터 4억원을 대여해 서봉사극락암의 건물과 대지를 10억 3000만원에 매입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불교방송 이사회는 뮤지컬 원효 제작사업 관련 외부현금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10억1700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윤제철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외부현금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10억1700만원을 한중불교문화협회에 청구해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구상진)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부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의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해 한 때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부처님은 ‘어떻게 먹으라’ 하셨나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고문헌 조사’서 밝혀

사찰음식 이전에 부처님 교단 당시 음식 문화 변천과정과 불교의 음식관에 대한 경전적 전거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은 최근 사찰음식 문헌 자료집인 <사찰음식 고문헌 조사(사진)>를 발간했다.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선 문화사업단이 경전 문헌 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경전에 수록된 ‘음식’과 관련한 서술은 방대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김판태 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에게 집필을 의뢰하고 2011년 초기경전과 2013년 율장을 중심으로 경전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자료집은 총 10개의 첩터와 23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중일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을 비롯한 불교 초기 경전과 율장의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됐다.

구성도 치밀하다. 음식에 대한 정의부터 △음식에 대한 금계 △식재료와 식문화 △조리법과 취사도구 △식사량 △식사예절 △음주, 오신체에 대한 입장 등 경전에 나타난 기술들을 알기 쉽게 분류했다. 매 첩터별로 경전 색인을 별도로 첨부해 연구자가 원문을 찾아볼 수 있게 한 부분도 자료집에 가진 강점 중 하나다.

다양한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의 근거들은 불교 교단의 음식문화의 변천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신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고문헌 조사’서 밝혀

체(부추, 파, 마늘, 흥거, 달래)에 대한 이야기다. 자료집에 따르면 초기경전 <아함경>에서는 오신체에 대한 기술이 없으나 대승경전인 <대열반경> <범망경> 등에서 오신체가 확인되고 있다.

김 대표는 “파사익왕의 일화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비만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더 찾아내서 정리한다면 현대인들의 식사법에 사찰음식이 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 대해 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사찰음식 연구와 관련 콘텐츠 개발에 앞서 음식에 대한 교학적 이해 및 고증학적 근거들이 발굴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는 불교 경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전까지 영역을 확대해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전거를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www.tongdosa.or.kr

# 보살계산림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시고 戒를 설하신 戒律 근본도량입니다.

감오년 보살계수계산림 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일 재** 2014년 4월 4일(음 3월 5일) 금요일

**회 향** 2014년 4월 6일(음 3월 7일) 일요일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대화상** 중산 혜남

- 동 참 금 : 5만원 (새마을금고 : 6269-09-005031-0 예금주: 통도사)
- 문의 및 접수처 : 통도사 중무소 055)382-7182,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각 말사(암) 중무소
- 차 량 안 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 9시

영 축 총 림

## 通度寺

주지 원산 도명 합장